

현대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니트 소재 활용 현황

이연희 · 박정인* · 이한철** · 장정임†***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후연구원***

The analysis of knit design elements of men's knitwear

Younhee Lee · Jungin Park · Hanchul Lee · Jung-im Jang[†]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18. 8. 20 접수; 2018. 9. 21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ocument special design elements of the knit material, such as yarn, stitch, and gauge used in various types of knit in a collection of men's fashion,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database design. The analysis covers 37 brand collections of men's clothing, used to collect a total of 1,954 men's knitwear photographs, and others were collected from 12 collections from F/W to 2017 S/S collection through www.vogue.c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knit design elements of the contemporary men's collection since 2011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1,513 straight yarn (77%) and 440 decorative yarn (23%) types of yarn. There were many different kinds of decorative yarn, such as two tone and melange effect in three colors, and the emergence of hairy yarn, like mohair and angora shannell, which was much common in low gauge's knitwear designs. Second, the frequency was high with low and middle gauges. thin and light high-gauges were often found in S/S collections, but there were also thick types of yarn in low-gauge knitwear. Third, 794 (40.6%) items used basic stitches such as plain stitch, which was the most utilized. The plain stitch, which is the most basic of the knit stitches, appears to be in high demand for its use, along with the use of various decorators. The development of printing and dyeing technologies has led to many designs that utilize the printer for the plain stitch. 326 (16.7 %), of colored jacard stitch, and of 175 (0.9 %) of intasia stitch.

Key Words: men's knitwear(남성 니트), knit material(니트 소재), yarn(원사), stitch(조직), gauge(게이지)

[†]Corresponding author : Jung-Im Jang

Tel. 82-10-3302 5953

E-mail : jungimjang@naver.com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8)

I. 서론

니트 디자인은 다양한 원사의 활용, 편직 과정에서 다양한 조직의 변화, 게이지의 조절 등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이후 여러 장식기법을 추가로 하여 또 다른 변화를 줄 수 있어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 분야이다. 니트웨어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와 여가시간 활동에 적절한 캐주얼 패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많은 수요를 갖게 되었고, 폭 넓은 디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Lisa D. S. & Marilyn H., 2008). 최근 니트 산업에서는 캐주얼에만 국한되었던 니트를 드레이프성과 보온성 및 활동성의 특성과 더불어 기능성을 추가시켜 스포츠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적용되면서 패션산업분야에 경쟁력을 더하고 있다.

니트 제품은 원사에서부터 기획되므로 원사, 편직, 가공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디자인 실패율이 매우 크게 되고, 이는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한계를 갖게 된다. 니트를 편직할 때, 편직기에서 동일한 편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편성 조직이나 밀도에 따라 편직된 편성포의 구조 및 외관특성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니트 소재의 편성조직, 폭, 길이, 두께, 무게, 밀도 등은 기본적인 구조적 특성이지만 그 용도에 따라 니트 소재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평가요인이 된다.

니트 소재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원사, 조직, 게이지, 장식기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니트는 기본적으로 원사의 종류, 기계 조작에 따른 여러 조직, 기계의 게이지, 기계 부품의 조절에 의한 밀도조절, 편직물의 상태에서도 장식적인 요소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편직이나 봉제 완성 후에 더해지는 장식 방법에 따라 완성된 니트 디자인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적 실루엣과 형태를 유지하며 다양한 니트 디자인 요소를 응용하여 발표되고 있는 현대 남성 니트웨어 컬렉션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니트 소재 요소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니트 디자인의 다양한 활용화를 위하여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웨어 소재의 원사, 조직, 게이지 등의 니트 소재의 특수 디자인 요소를 자료화하고, 니트 디자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니트 디자인을 위한 원사, 편직 방법, 조직, 게이지 등의 니트 소재 구성요소의 기초 자료를 정리하였다. 남성복 컬렉션은 전문적인 패션 정보사이트 보그닷컴(www.vogue.com)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니트웨어의 소재 요소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의 수집 범위는 니트 디자인의 조직 문양 게이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남성복 37개 브랜드 컬렉션을 대상으로, 최근 컬렉션인 2011년 F/W~2017 S/S 컬렉션까지 12회의 컬렉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는 니트웨어 중 스웨터로 불리는 횡편 니트웨어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저어지나 경편 니트웨어, 핸드 니트로 보이는 자료는 수집과 분석시 제외하였다. 이너웨어의 경우, 보이는 면적이 상의 기준으로 1/3이상 보이는 사진들을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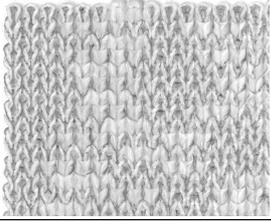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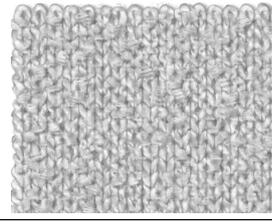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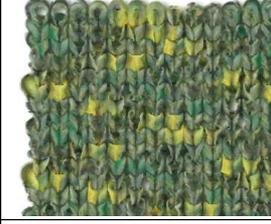
II. 니트 디자인의 소재 요소

니트는 기본적으로 원사의 종류, 편직 방법에 따른 여러 조직, 배색을 표현하는 방법, 게이지 등에 의해 표현된다. 이미 제작되어 있는 일반직물이나 기타 소재들을 선택하여 디자인을 전개하는 방식과는 달리 니트는 원사의 종류와 색상, 원하는 조직 및 적합한 게이지와 편성 기계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용도에 맞는 편기를 사용하여야 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 남성 니트웨어의 경향을 니트 디자인의 주요 요소인 원사, 게이지, 편직의 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1. 원사

니트는 원사의 굵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게이지가 달라지므로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트용 원사는 크게 재료, 굵기, 만드는 방법에 따라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은 단사(single yarn), 교합사, 재질감에 변화를 준 장식사로 구분할 수 있다. 단사는 실을 2가닥이상 합쳐 꼬임을 주는 합연사(ply yarn)가 있고, 교합사는 방적 시 서로 다른 단사를 꼬거나

<표 1> 장식사의 종류

슬럽사(slub yarn)	스파이럴사(spiral yarn)	부클사(boucle yarn)	이색연사(grandrelle yarn)
			
			

출처: 이슬아 외, 2015

꼬임수가 다른 단사를 합연하여 만드는 실이다. 원사의 합수는 굵기와 편직할 기계의 케이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편성물의 외관에 영향이 있으므로 중요하다. 원사의 굵기에 대한 기준은 면사를 기준으로 극세사, 세사, 중세사, 중사, 태사로 나뉜다(박기운 외, 2006).

장식사는 연사 방법에 의한 장식사, 편성 또는 편성 후 절단에 의한 장식사, 방법제직이나 방사 후 절단에 의한 장식사, 색상에 의한 장식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사 방법에 따라 넵사(nep yarn), 슬럽사(slub yarn), 마디가 나타난 원사, 고리를 낸 원사, 심사에 다른 실을 감은 실, 탐(tam tam)이 있으며, 원사가 아닌 스팅글이나 부직포 등을 삽입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다. 편성방법에 따라 튜브사(tubular yarn), 테이프사(tape yarn)등이 있고, 편성 후 절단하는 방법으로 클립사(clip yarn), 제직이나 방사 후 절단에 의한 것으로 셔닐사(chenille yarn), 루렉스사(lurex yarn), 색상에 의한 장식사는 멜란지(melange), 물리네(mouline), 헤더 블렌더(heather blender), 재스퍼(jasper), 스페이스 다이드얀 (spaced-dyed yarn), 프린트얀(printed yarn) 등 다양하다(박기운 외, 2006)<표 1>.

본 연구에서는 웹의 사진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므로 시각적으로 재질감의 변화가 구별이 가능한 스트레이트 안인 일반사와 재료, 굵기, 만드는 방법에 변화를 준 장식사로 크게 분류하였다. 장식사의 분류 기준 또한 제작 방법의 큰 기준으로 분류하며, 장식사의 기준이 시각적 효과가 있는 특수사까지 포함되므로 섬유의 종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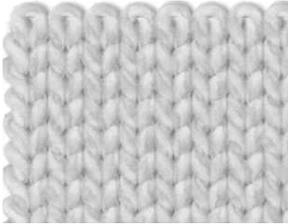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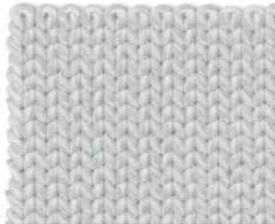
분류한 장식사는 헤어의 길이가 긴 헤어얀(hair), 연사를 하지 않은 로빙(roving), 합성 섬유인 루렉스, 굵기가 굵은 태사를 장식사로 포함하였다.

2. 케이지

케이지란 표준치수, 표준 규격, 척도를 의미하며 편물에서는 제품을 정확하게 치수대로 제작하기 위해 편사의 시험뜨기로 코스 방향으로 코, 웨일 방향으로 단의 밀도로 파악한다. 니팅 기계에서 1인치 안에 들어가는 코와 바늘의 수로 인치당 바늘수인 영국 시스템을 바탕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케이지 표기는 ‘숫자G’로 표기하며, 숫자가 클수록 가는 케이지가 되어 얇은 편성물을 편직할 수 있다. 케이지의 요소는 실의 굵기, 용구의 굵기 또는 밀도로 당기는 힘의 강도, 케리지에 바늘이 올라가는 정도이며, 이러한 요소에 의해 조직의 밀도에 차이가 생긴다(이순홍, 2000). 원사에 맞는 바늘의 굵기에 따라 케이지가 달라지므로 적절한 관계에 맞는 것들을 정하여 편직하여야 하며, 기계에 의한 케이지를 기본으로 밀도와 원사의 합수를 조절하여 다양한 재질감을 표현하기도 하므로, 편직물의 두께와 비교하여 1.5게이지~3게이지는 벌키 패브릭(Bulky Fabric), 5게이지~7게이지는 스탠다드 패브릭(Standard Fabric), 10게이지~18게이지는 파인 패브릭(Fine Fabric)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Richard & Jenny,), 또는 헤비 게이지(Heavy Gauge, 3~5G), 미들 게이지(Middle Gauge, 7~10G), 화인게이지(Fine Gauge, 12~14G), 울트라 화인게이지(Ultra Fine Gauge, 16~18G)로 분류하기도 한다.

<표 2> 게이지에 따른 편성물 및 편직기

로우 게이지 3 Gauge	미들 게이지 7 Gauge	하이 게이지 12 Gauge
		
		

출처: 이슬아 외, 2015

고순영과 박명자(2010), 박문희와 이연희(2009)의 연구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로 12게이지 이상을 하이 게이지(High Gauge), 7~10 게이지를 미들 게이지(Middle Gauge), 5게이지 이하를 로우 게이지(Low Gauge)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분류 기준으로 분류하였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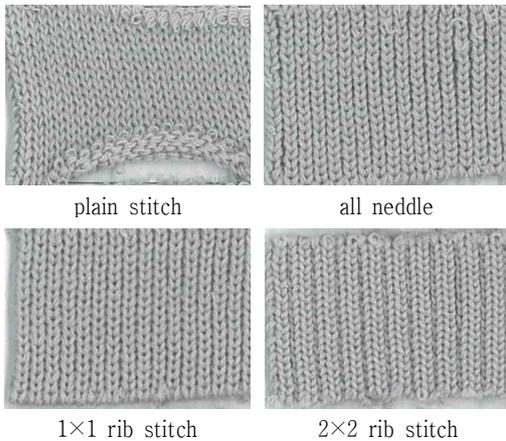
3. 조직

니트의 조직을 만드는 편성원리는 니트(knit), 터크(tuck), 웰트(welt), 랙킹(racking), 트랜스퍼(transfer)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낸다. 니트(Knit)는 기본 편직원리로 편침으로 실을 공급받아 새로운 코를 형성한다. 터크는 편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밀의 코와 함께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코를 만드는 방법이다. 웰트는 미스(miss)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코를 형성하지 못하며, 랙킹은 베드 자체를 좌우로 몇 바늘정도의 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트랜스퍼는 바늘에서 다른 바늘로 코를 옮기는 방법을 말한다. 니트는 이상의 기본 편성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조직을 표현할 수 있다(김석근, 1995). 기본조직을 편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동작 외에 바늘에 여러 가지 다른 동작을 응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조직을 변형조직이라 한다.

1) 기본조직

기본조직은 플레인(plain)과 리브(rib) 조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플레인은 니트의 가장 기본조직으로 한쪽 면에서만 루프가 형성되므로 앞과 뒤가 분명히 구별되는데, 코 모양이 보이는 겉면을 'Knit', 'Technical Face', 이면을 'Reverse Jersey', 'Purl Face'라고도 하며 가장자리 양쪽 끝이 말리는 경향이 있다(김석근, 1995). 니트 기계 배드의 양쪽 바늘을 모두 활용한 조직은 all needle 조직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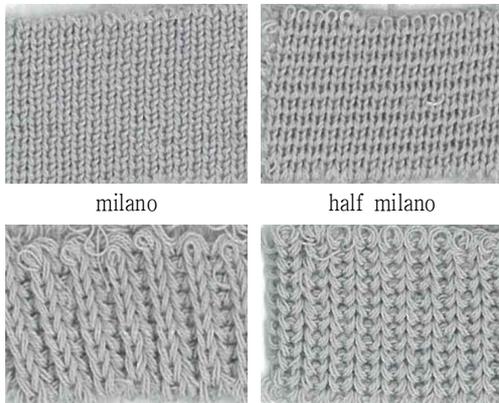
리브 조직은 같은 코스방향을 따라 편성물의 양쪽에 겉코와 안코의 조합이 된 양면 조직이다. 어떤 코는 겉쪽에서 형성되고, 다른 코는 안쪽에서 코가 형성되어 코의 앞면과 뒷면이 길이 방향을 번갈아가며 보인다. 세로로 무늬가 생기고, 겉과 안의 모양이 같고, 가장자리가 말리지 않는다. 길이 방향에 비해 폭 방향으로 잘 늘어나서 스웨터의 헴라인, 소매의 커프, 넥 피니쉬에 많이 사용된다(김석근, 1995). 편침의 배열에 따라 1×1, 2×2 등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고, 불규칙하게 편침을 배열할 수도 있다(그림 1). 리브 조직의 변형으로 밀라노(milano) 조직, 하프밀라노(half milano) 조직, 풀가디건(full cardigan), 하프 가디건(half cardigan) 조직이 있다(그림 2).



plain stitch all needle
1×1 rib stitch 2×2 rib stitch

<그림 1> 니트의 기본 조직,

출처: 직접 편직



milano half milano
full cardigan half cardigan

<그림 2> 니트의 기본 조직: 변형 리브 조직,

출처: 직접 편직

2) 변형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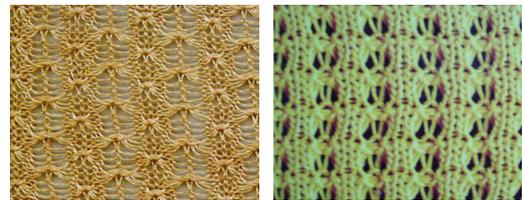
위편성물의 변화 조직으로는 양두(펠, purl), 터크, 레이스, 케이블, 부편 등이 있다. 펄조직(purl)은 양두편기에서 편직됨으로 링크스 앤 링크스(links & links knit)라고도 하며, 편성물의 한쪽 면에서 코의 표면과 이면이 번갈아 가며 보인다. 길이방향으로 신축성이 좋다. 터크편(tuck stitch)은 기본 조직 중에서 2개의 편목길이 이상으로 길게 루프를 형성하는 편목을 말한다. 한 코를 다음 코스의 코와 합쳐서 그 다음 코에 거는 조직으로 두껍고 질긴 편성물이 얻어진다. 부편은 웰트 스티치(welt stitch) 또는 미스 스티치(miss stitch)라고 하며 코스 도중에 코를 만들지 않고 띄우는 편성으로써, 뒷면에는 실이 옆으로 길게 직선으로 떠 보

이나 표면에는 긴코가 나타나므로 변화가 생겨 무늬를 내는데 이용한다. 레이스편(lace stitch)은 코를 건 웨일의 코에 합쳐서 걸어 편성하는 조직으로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된다(그림 3). 북유럽 전통 니트에 주로 나타나는 케이블 조직(cable stitch)도 컬렉션에 많이 응용되며 사용되고 있다.

기본 조직은 일반적인 수동 편직기에서 편직되며, 변화 조직들은 컴퓨터 니트 기계에 의해 편직하며, 배색을 응용하는 디자인의 니트는 컴퓨터 컬러 자카드 기법을 이용하여 편직한다.



양두편조직 (links & links stitch)



터크 조직 (tuck stitch)



미스 조직 (miss stitch)



레이스 조직 (lace stitch)



케이블 조직 (cable st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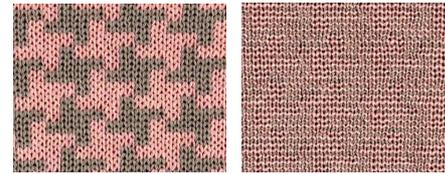
<그림 3> 니트의 변형 조직,

출처: 한양여자대학교 니트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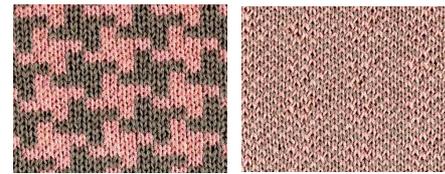
3) 컬러 니트 자카드

자카드(Jacquard)라는 용어는 1804년 조셉 마리 자카드(Joseph Marie Jacquard)가 발명한 직물의 경사 선침 장치에서 유래되었으며, 니트에 있어서는 바늘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색사에 의한 무늬를 내는 장치를 뜻한다. 자카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따라 선택된 바늘은 앞 베드에서 니팅하고 그렇지 않은 바늘은 뒤 베드에서 니팅한다. 같은 구간에서 색상수가 증가하면 소요되는 실의 양이 증가되고 편지는 그만큼 두꺼워 진다(박문희, 이연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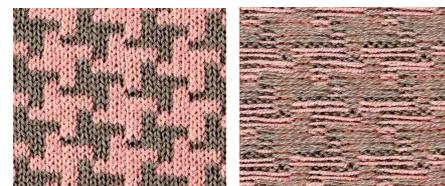
자카드는 이면조직에 따라 7가지로 구분되며, 편직의 종류와 편직 특성에 따라 크기, 중량, 물성들의 차이가 있다. 노말 자카드(Nomal Jacquard)는 all needle backing에 의하여 편성되며, 중량이 많아 원사 소요량 많다. 3도 이상이 되면 표면 무늬가 늘어나 뒷면이 거칠어지는 단점이 있다. 버드아이 자카드(Bird'eye Jacquard)는 노말 자카드의 단점을 보완하여 원사 소요량 및 표면의 무늬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완한 편직방법으로 일반적으로 4도 이상의 색상으로 작업할 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다. 플로팅 자카드(Floating Jaquard, Single Jacquard)는 원사 소요량이 절약되고 완성된 편지의 무게도 가벼우나, 완성된 편지의 뒷면이 이면의 실이 플로팅되어 있어 착용 시에 원사가 당겨질 위험이 많다. 튜블러 자카드(Tubular Jacquard)는 자카드 편지 중 가장 두꺼운 조직이다. 2도인 경우 표면과 이면의 무늬와 색상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리버시블 형태의 디자인에 응용한다. 레더백 자카드(Ladder's back Jacquard, Binding Jacquard)는 튜블러 자카드와 플로팅 자카드의 혼합형 자카드로 플로팅 자카드의 결점을 보완한 조직이다. 블리스터 자카드(Blister Jacquard)는 버드아이 자카드와 튜블러 자카드의 중간 조직으로, 싱글 블리스터의 부풀음은 적고, 더블 블리스터는 용기가 크게 나타난다. 트랜스퍼 자카드(Transfer Jacquard)는 이면의 실이 앞에서 보이게 하여 연출하는 조직으로, 바닥조직을 형성하는 편사 중 뒤 베드의 바늘들에 편성되는 편사의 색상선정에 따라 패턴상태가 변화한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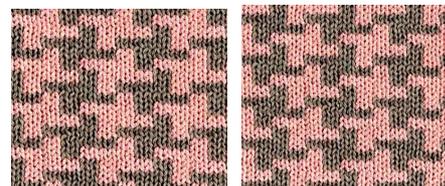
노말 자카드(Nomal Jacqu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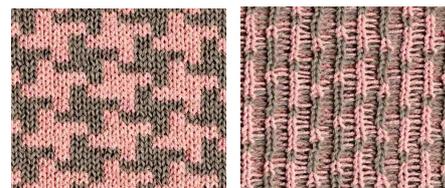
버드아이 자카드(Bird'eye Jacqu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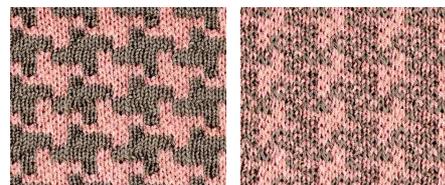
플로팅 자카드(Floating Jaqu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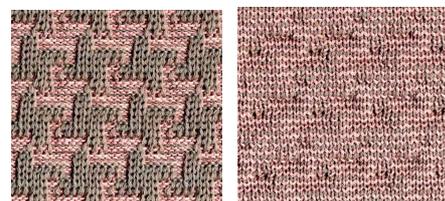
튜블러 자카드(Tubular Jacquard)



레더백 자카드(Ladder's back Jacquard)



블리스터 자카드(Blister Jacquard)



트랜스퍼 자카드(Transfer Jacquard)

<그림 4> 니트의 컬러자카드 앞 뒤 조직,
출처: 직접 편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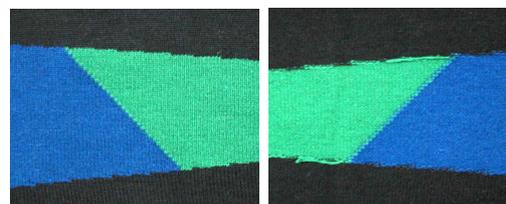
<표 3> 니트 디자인의 소재 요소

분 류	세부 특성			
원사	일반사	스트레이트 양, 특별한 가공을 추가하지 않은 천연 또는 합성 원사		
	장식사	섬유 종류	헤어양(hair), 로빙(roving), 루렉스(lurex)	
		실의 굵기	극세사, 세사, 중세사, 중사, 태사, 로빙사	
		제작 방법	연사 방법	넵사(nep yarn), 슬립사(slub yarn), 마디가 있는 실, 고리를 낸 실, 심사에 다른 실, 감은 실, 탐탐(tam tam), 이물질 삽입
			편성 방법	튜브사(tubular yarn), 테이프사(tape yarn)
			편성 후 절단	클리프사(clip yarn)
			제직 후 절단	셔닐사(chenille yarn)
색상	멜란지(melange), 물리네(mouline), 헤더 블렌더(heather blender), 재스퍼(jasper), 스페이스 다이드양(spaced-dyed yarn), 프린트양(printed yarn), 이색 연사			
게이지	하이 게이지	12게이지 이상		
	미들 게이지	7게이지, 10게이지		
	로우 게이지	5게이지 이하		
조직	기본조직			
	플레인 (plain), all needle 1x1리브, 2x2리브, 불규칙 리브			
	변화 조직	리브 변형	하프 가디건(Half Cardigan), 풀 가디건(Full Cardigan) 밀라노(Milano), 하프 밀라노(HalfMilano)	
		플레인 변형	●양두편조직 (links & links stitch) ● 터크(Tuck) ●미스 조직 (miss stitch) ● 레이스(Lace)	
	컬러 조직	컬러 자카드	●노말 자카드(Normal Jacquard) ●버드아이 자카드(Bird's eye Jacquard) ●후로팅 자카드 (Floating Jacquard) ●래더백 자카드 (Ladderback Jacquard) ●튜브러 자카드(Tubular Jacquard) ●트랜스퍼 자카드(Transfer Jacquard) ●블리스터 자카드(Blister Jacquard)	
		플레인 단면	●인타시아(Intarsia)	
전통문양		●북유럽 전통 무늬 ●캐나다 카우첸 무늬 ●페루 무늬		

4) 인타시아

인타시아(Intarsia)는 이탈리아어인 'Intarsiare'에서 유래된 용어로 인레이(Inlay: 상감하다, 도장찍다)를 뜻한다. 인타시아는 실제적으로 도장 찍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배색무늬에 가장 효과적인 조직으로 디자인이 뚜렷하고 편물의 두께가 얇아서 최근 섬유의 경량화 트렌드에 맞추어 가장 선호되는 니트 조직이라 할 수 있다(그림 5).

이와 같은 니트 디자인의 소재별 세부요소를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그림 5> 니트의 인타시아 조직 앞면과 뒷면
출처: 한양여자대학교 니트연구소

Ⅲ. 2011년 이후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소재 활용

본 연구는 2011년 이후의 남성 니트 디자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컬렉션 2011년 F/W ~2017년 S/S 시즌까지 자료를 보그닷컴(www.vogue.com)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대상은 남성복 컬렉션에서 니트웨어를 꾸준히 선보이는 아크네 스튜디오(Acne Studios), 아미(Ami), 안드리아 폼폴리오(Andrea Pompolio), 발리(Bally), 발망(Balmain), 버루티(Berluti), 빌리 레이드(Billy Reid),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브리오니(Brioni), 부르넬로 쿠치넬리(Brunello Cucinelli), 버버리(Burberry), 디올 옴므(Dior Homme), 돌체앤 가바나(Dolce & Gabbana), 드리스 반노튼(Dries Van Noten),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펜디(Fendi),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에르메스(Hermes), 제이크루(J. Crew), 켄조(Kenzo), 맨(Man), 마가렛 하우웰(Margaret Howell),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엠에스지엠(MSGM), 넘버 21(No.21), 오프닝세레머니(Opening Ceremony), 오를레이(Orley), 프링글 오브 스코틀랜드(Pringle of Scotland), 라프 시몬(Raf Simons), 사카이(Saca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시블링(Sibling), 토드 스나이더(Todd Snyder), 탑 맨 디자인(Topman Design), 발렌티노(Valentino), 베르사체(Versace),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의 37개 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12 시즌 간 총 1,954개의 남성니트웨어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너웨어로 착용된 경우 니트의 케이지나 조직 식별이 가능한 자료로만 선별하였다. 전문적 니트 브랜드 미소니는 조직의 활용도에 컬러자카드의 빈도가 너무 크게 나타나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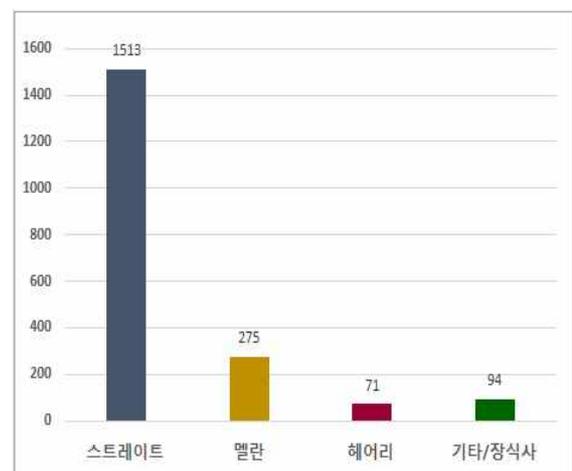
수집 결과를 살펴보면, 시블링(118개)이 가장 니트웨어가 많이 나타났으며, 프링글 오브 스코틀랜드(103개), 비비안 웨스트우드(86개), 엠포리오 아르마니(83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에르메스나 라프시몬도 니트 디자인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었다. 니트 디자인의 소재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사의 활용

현대 남성컬렉션 2011년 이후 나타난 니트웨어 원사의 종류는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안이 1,513개(77%)로 장식사 440개(23%) 대비 많이 나타났다. 장식사의 종류는 투톤이나 3가지 색상의 멜란사나 혼합된 효과의 원사가 많이 보였으며 헤어리한 원사도 다양한 조직의 활용과 함께 디자인되어 나타났다<그림 6>.

모헤어나 앙고라 셔닐과 같은 헤어리 안의 등장도 많이 나타나 로우 케이지의 니트웨어 디자인으로 많이 발표되고 있었다. 베르사체는 앙고라 헤어 느낌의 원사에 케이블의 조직 자카드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시블링에서는 스트레이트 안과 셔닐느낌의 헤어리한 원사를 배색으로 조직과 원사의 다양성을 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라프시몬은 헤어리 원사로 레이스 효과의 조직을 활용하여 가벼운 가을 겨울 니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다양한 장식사의 활용은 로우케이지의 니트웨어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봄, 여름 남성 니트에도 다양한 원사가 활용되고 있었다. 기본적인 면 소재의 원사에 다양한 케이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키한 광택 원사의 활용도 많이 보이고 있었다. 브리오니에서는 기본 변형 니트 조직을 활용한 셔츠형의 풀오버 디자인으로, 펜디에서는 레이스 조직을 활용하여 오렌지 색상의 풀오버를 선보였다<표 4>.



<그림 6> 2011년 이후 현대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원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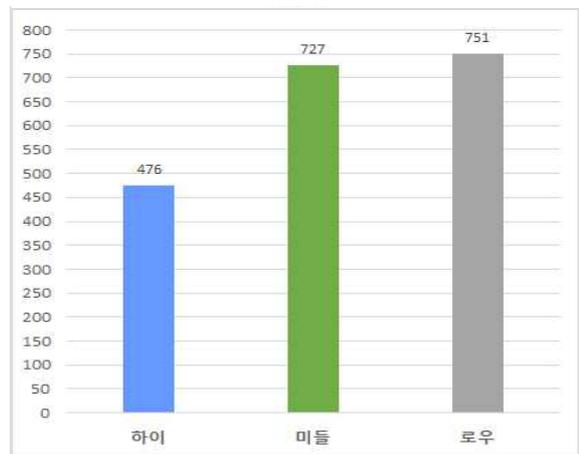
<표 4> 2011년 이후 현대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원사 활용 현황

FW 시즌의 다양한 장식사 활용				
				
Todd Snyder 16 FW	Pringle of Scotland 16 FW	No.21 15 FW	Versace 16 FW	Sibling 14 FW
SS 시즌 다양한 원사 활용				
				
Hermes 16 SS	Brioni 13 SS	Fendi 14 SS	Hermes 13 SS	Bottega Veneta 17 SS

출처: www.vogue.com

2. 게이지

2011년 이후 수집된 남성 니트웨어 자료의 게이지 빈도를 분석해보면, 로우 게이지가 많이 나타났으며 미들게이지도 로우게이지의 빈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 7>. 얇고 가볍게 나타나는 하이게이지는 SS 컬렉션에 주로 많이 나타났다. 앞서 2001년~2010년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남성 니트웨어(이승아, 이연희 2012)에서는 하이게이지 빈도가 많이 나타났던 상황과 비교하면 다양한 특수사의 사용 편안한 실루엣 등의 트렌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이후의 컬렉션에서는 SS 컬렉션에서도 굵은 태사의 미들게이지나 로우게이지의 니트웨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림 7> 2011년 이후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게이지 현황

일반적인 봄여름 남성 니트웨어는 하이게이지나 미들게이지의 얇고 가벼운 니트 디자인으로 주로 나타나지만, 2011년 이후의 남성 니트 디자인은 로우게이지의 여름 니트 디자인이 많이 선보였다. 디올 옴므, 에르메스, 드리스 반 노트, 프링글 오브 스코틀랜드에서는 밝은 컬러

의 로우게이지의 풀오버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가을 겨울 남성 니트 디자인에는 이너웨어용 하이게이지나 미들게이지 니트가 주로 많이 나타난다. 2011년 이후의 디자인에서도 에르메스, 엠포리오 아르마니 등의 브랜드에서 얇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하이게이지 풀오버 디자인

<표 5> 2011년 이후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게이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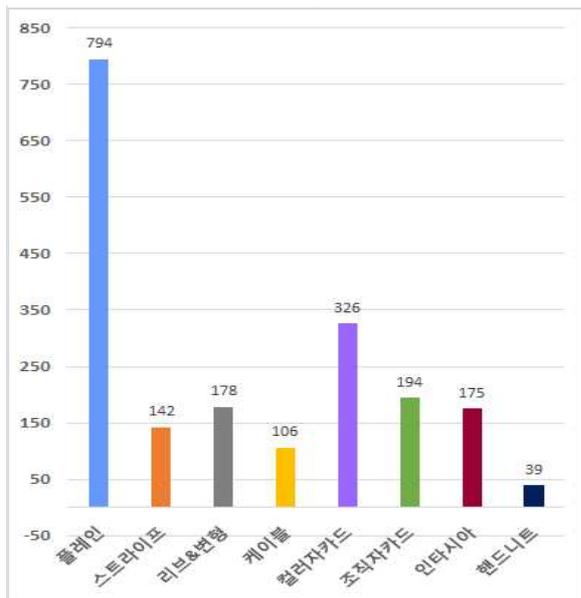
	SS 시즌 남성 니트웨어		FW 시즌 남성 니트웨어	
하이 게이지 디자인	 Emporio Armani 14 SS	 Ferragamo 13 SS	 Hermes 12 FW	 Opening Ceremony 15 FW
미들 게이지 디자인	 Berluti 16 SS	 Burberry 13 SS	 Brioni 15 FW	 Todd Snyder 16 FW
로우 게이지 디자인	 Dries Van Noten 17 SS	 Pringle of Scotland 12 SS	 Brioni 15 FW	 Orley 15 FW

출처: www.vogue.com

이 나타났으며, 또한 미들게이지의 배색 풀오버나 자카드 조직도 많이 선보였다. 2011년 이후의 남성 니트웨어의 특징은 다양한 조직 활용의 로우게이지의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 5>.

3. 조직의 활용

2011년 이후 남성 니트웨어의 니트 조직 활용은 기본 조직인 플레인 조직이 794개(40.6%)로 제일 많이 나타났다. 플레인 조직은 니트 조직의 가장 기본 조직으로 다양한 장식사의 활용과 함께 그 활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프린트나 나염 기술의 발달로 플레인 조직에 프린트를 활용하는 디자인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스트라이프 문양도 기본 조직으로 스트라이프 문양을 포함한 기본조직은 전체 수집 자료 중에서 4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컬러 활용의 컬러 자카드 조직이 326개(16.7%), 인타시아 조직이 175개(0.9%)로 활용되었다<그림 8>.



<그림 8> 2011년 이후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니트 조직의 활용

1) 기본 조직

기본 조직은 플레인 스트라이프 리브 조직 및 변형 리브조직으로 총 1,114개로 57%의 분포율로

나타났다. 최근 나타난 기본조직은 복고적 경향의 트렌드로 F/W 시즌에는 장식사 활용의 기본 조직 활용이 두드러지게 보였다. 팬시안의 사용 조직은 하이게이지에는 작업이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 별키한 느낌의 니트 디자인으로 발표되고 있었다. 그러나 S/S 시즌에는 하이게이지의 얇은 니트웨어가 많이 보이기도 했다.

기본 플레인 조직은 니트웨어의 기본 조직으로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기본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에르메스에서 기본적인 슬림형 실루엣에 바디와 소매의 컬러배색 효과를 세련된 느낌의 하이게이지로 FW 시즌의 니트웨어를 보여주었으며, 펜디에서는 기본 플레인 조직에 변형 리브조직을 소매 이음 부분이나 네크라인 등에 활용하는 디자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는 바디와 소매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조화시켜 플레인 조직의 가디건을 디자인하였다. 최근에는 프린트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본 조직에 다양한 프린트 효과를 주는 디자인들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돌체앤 가바나는 화려한 꽃 문양 프린트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테가 베네타는 플레인 조직에 배색의 색상을 활용한 불규칙한 염색 기법의 니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기본 조직은 복고풍의 트렌드와 함께 과거의 스웨터를 가져온 듯한 디자인의 활용이나 다양한 장식사의 개발과 함께 그 활용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로우 게이지들을 활용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발표되고 있다. 발렌티노는 멜란 효과의 팬시안과 컬러 배색 효과의 풀오버를 선보였으며, 발리와 벨루티에서도 부클레 원사의 스웨터와 혼합 컬러의 멜란 장식사로 디자인된 풀오버가 나타났다.

장식사의 활용은 스트라이프 문양에도 활용되어 단순한 스트라이프 디자인에서 좀더 다양성을 활용한 디자인들이 보여지고 있다. 넘버 21에서는 헤어리한 원사를 활용한 스트라이프 니트웨어를 보여주었으며, 겐조는 불규칙한 굵은 스트라이프 디자인에 수공예 터치를 더한 창의적인 스트라이프 플레인 조직을 활용하였다. 보테가 베네타는 4도의 색상을 창의적으로 변화있게 활용하여 기본 조직의 스트라이프 니트웨어를 발표하였다<표 6>.

남성 니트웨어의 봄 여름 시즌에서는 가는 원사를 사용한 얇은 하이게이지의 니트웨어들이 주로

<표 6> 2011년 이후 FW 시즌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기본 조직의 활용

플레인 조직 및 활용				
				
Hermes 12 FW	Fendi 15 FW	Westwood 13 FW	Dolce & Gabana 16 SS	Bottega Veneta 14 FW
플레인 조직의 장식사 활용 및 스트라이프 디자인				
				
Bally 15 FW	Berluti 14 FW	No.21 16 FW	Kenzo 15 FW	Bottega Veneta 14 FW

출처: www.vogue.com

나타나고 있다. 에르메스와 브리오니, 페라가모에서는 얇은 하이게이지의 니트 풀오버 디자인에 셔츠를 같이 코디네이션 하여 발표하였는데 셔츠와 넥타이가 겹으로 드러나는 정도의 비치는 효과를 만들어내어 새로운 느낌의 남성 스웨터로 보여진다. 특히 페라가모는 원색적인 컬러대비의 코디네이션으로 새로운 남성 니트 디자인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장식사의 활용은 SS 시즌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토드 스나이더는 얇은 가디건으로 여름시즌에 어울리는 도시적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사카이는 봄 시즌 가디건 디자인에 팬시안을 활용하여 편안하고 여유있는 사이즈의 디자인을 앞단에 배색 원단 포인트로 디자인하여 사카이 특유의 니트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마이클 코어스는 셔닐 느낌의 헤어리한 원사를 밝은 컬러로 봄 시즌 V넥 풀오버 디자인으로 보여주었

다. 또한 SS 시즌의 스트라이프 활용디자인을 살펴보면, 넘버 21에서는 그레이 계열의 멜란사와 컬러플한 원사를 조합하여 새로운 배합의 스트라이프 풀오버를 발표하였으며, 디올 움르는 플레인 조직에 멜란사와 변형 링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남성 니트웨어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사카이는 셔닐사 느낌의 원사 소재로 받고 활동적인 느낌의 플레인 풀오버 니트웨어 디자인을 보여주었다<표 7>.

2) 변형 기본 조직의 활용

2011년 이후 남성 니트웨어는 장식사나 다양한 조직을 활용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기본 플레인 조직에 리버스(reverse)를 활용한 변형 기본 조직들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바늘을 비운 레이스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다. 펜디에서는 배색을 활

<표 7> 2011년 이후 SS시즌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기본 조직의 활용

하이 게이지의 플레인 조직				
				
Hermes 13 SS	Ferragamo 13 SS	Brioni 16 SS	Todd Snyder 16 SS	
플레인 조직의 장식사 활용 및 스트라이프 디자인				
				
Sacai 17 SS	Dior Homme 15 SS	No.21 15 SS	Michael Kors 17 SS	Sacai 17 SS

출처: www.vogue.com

용하여 플레인 조직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변형시킨 핸드 니트 느낌의 폴오버를 선보였으며, 엠포리오 아르마니는 거친 듯한 링스(links) 조직으로 점퍼형 가디건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에르메스와 미클 코어스에서는 굵은 태사를 활용하여 기본 조직과 리버스를 조화시킨 편직 방법으로 도시적인 남성 니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리브조직은 기본형으로 많이 활용되는데 디자인을 다양하게 적용시킨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브리오니는 변형 리브조직을 네크라인과 어깨에 더하여 리브조직의 다양한 활용을 보여주었다. 토드 스나이더는 멜란 효과 원사를 사용한 변형 리브조직 폴오버를 머플러와 코디하여 발표하였다. 토드 스나이더는 넓은 변형 리브조직과 멜란사를 조화시킨 가디건을 디자인하였으며, 겐조는 컬러풀한 스트라이프 리브조직을 가로세로로 매치시켜 창의적인 남

성 폴오버 니트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봄, 여름 시즌의 변형 기본 조직의 활용은 봄 시즌에 주로 나타났다. 엠에스지엠에서는 소매와 네크라인에 넓은 리브조직과 언밸런스한 인타시아 배색 효과를 활용한 세련된 남성 니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안드레아 폼폴리오에는 1×1 리브조직에 밑단의 배색과 앞단의 배색 효과를 조화시킨 심플하면서 세련된 가디건 디자인을 발표하였으며, 에르메스는 리브조직을 사선의 조직으로 변형 조화시켜 새로운 리브조직의 폴오버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겐조는 기본 4×4 리브조직에 과감한 사선의 컬러 배색과 이중 컬러 활용의 폴오버 디자인 발표하였다<표 8>.

3) 변형 조직의 활용

최근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 니트웨어

<표 8> 2011년 이후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기본 조직의 변형 활용

FW 시즌 남성 니트 기본 조직의 변형 활용				
				
Fendi 13 FW	Emporio Armani 14 FW	Michael Kors 15 FW	Brioni 15 FW	Kenzo 15 FW
SS 시즌 남성 니트 기본 조직의 변형 활용				
				
MSGN 16 SS	Andrea Pompolio 13 SS	Hermes 15 FW	Kenzo 15 SS	Kenzo 15 SS

출처: www.vogue.com

는 로우게이지에 조직이 풍성하게 보이는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링크스(links) 조직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양두 조직이나 전통 북유럽 디자인 문양을 활용한 케이블 조직도 많이 보인다.

FW 시즌 남성 니트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터크 조직도 나타났는데,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두가지 배색 효과의 터크 조직을 활용한 별집 무늬 풀오버 디자인을 발표하였다. 브리오니는 불규칙한 사선 케이블 변형 조직의 풀오버를 보여주고 있다. 북유럽 니트에 나타나는 케이블 조직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조직은 로우 게이지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마가렛 하우스는 10게이지로 보여지는 하이게이지의 스트레이트 원사를 사용하여 몸판 바디에 상반신 부분만 케이블

조직을 넣어서 새로운 볼륨감을 표현하였다. 겐조도 새로운 색채 조합으로 전통 니트 문양을 표현하여 현대적인 감각의 니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드리스 반 노튼은 헤어리한 멀티컬러의 원사를 사용하여 새로운 케이블 니트 조직을 선보였다. 펜디는 전통 케이블 조직에 퍼 소재를 믹스하여 고급스럽고 새로운 남성 니트 풀오버를 발표하였다.

SS 시즌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불규칙적인 레이스 조직을 활용한 창의적인 남성 니트웨어를 발표하였으며 비비안 웨스트우드도 남성 니트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레이스 조직을 굵은 태사의 로우게이지로 편직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남성 니트 디자인을 선보였다. 탐맨 디자인과 돌체앤 가바나는 하이게이지의 조직 자카드를 활용하여 봄여름용 남성 니트웨어를 발표하였다<표 9>.

<표 9> 2011년 이후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변형 조직

FW 시즌 남성 니트 기본 조직의 변형 활용				
				
Giorgio Armani 14 FW	Brioni 15 FW	Kenzo 14 FW	Dries Van Noten 12 FW	Fendi 14 FW
SS 시즌 남성 니트 기본 조직의 변형 활용				
				
Bottega Veneta 14 SS	Westwood 16 SS	Topman Design 13 SS	Dolce & Gabana 14 SS	

출처: www.vogue.com

4) 컬러 자카드 조직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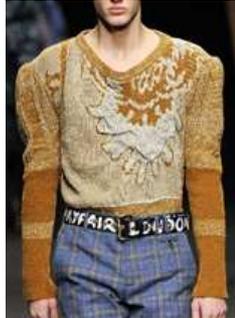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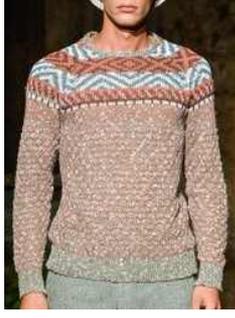
니트 조직의 컬러 자카드 종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7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현대 남성 니트 컬렉션에 나타난 컬러 니트 자카드 조직은 326개로 16.7%의 빈도를 보이고 있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편이다.

현대 남성니트웨어에 활용된 컬러 자카드 조직은 시각적으로 판단하여 문양에 따라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디자인으로 분류하였다. 주로 튜블러 자카드나 버드아이 자카드, 플로팅 자카드 등으로 보여지는 디자인들이 나타났다. 2도의 색상으로 튜블러 자카드나 버드아이 자카드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보이는 빌리 레이드는 추상적인 패턴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폴오버를 작업하였으며, 돌체 앤 가바나는 흑백의 색상에 가하학적인 패턴을 활용한 폴오버를 발표하였다. 펜디는 헤어리한

원사에 3도 색상을 활용한 기하학적 남성 니트 디자인을 보여주었으며, 마가렛 하우스와 토드 슈나이더는 전통 북유럽 디자인을 플로팅 자카드로 재현하였다. 프링글 오브 스코트랜드는 전통 문양을 변형한 요크 문양의 플로팅 자카드의 뒷면을 활용한 폴오버를 발표하였다. 비비안 웨스트우드도 2도 색상의 버드아이 자카드 조직으로 남성 재킷 가디건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추상적 문양을 블리스터 자카드로 표현하여 작업하였다.

자카드 조직은 양면 조직으로 두께감이 있어 SS 시즌의 니트 조직으로 활용하기엔 부담스러운 조직이나 여름용 원사의 개발과 섬세하게 조직할 수 있는 기술력과 기계 시설이 갖추어지면서 봄 여름 시즌에도 컬러 자카드 조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에르메스는 2도 색상의 규칙적인 패턴이 들어간 폴오버 디자인을 보여주었는데 여름 조직으로 활용하기엔 플로팅 자카드나 버드아이 자카

<표 10> 2011년 이후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컬러 자카드 활용

FW 시즌 남성 니트 컬러 자카드 조직의 활용				
				
Billy Reid 13 FW	Dolce & Gabana 17 FW	Margaret Howell 16 FW	Pringle of Scotland 15 FW	Westwood 16 FW
SS 시즌 남성 니트 컬러 자카드 조직의 활용				
				
Hermes 13 SS	MSGN 17 SS	Sibling 13 SS	Billy Reid 14 SS	Kenzo 16 SS

출처: www.vogue.com

드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에스지엠은 전통 아가일 패턴을 왜곡시켜 새로운 패턴 작업을 하였으며 3도 색상의 버드아이 자카드 활용으로 보여진다. 시블링에서도 메탈 원사를 사용한 2도 색상의 버드아이 자카드 조직으로 풀오버 가디건 셋트를 발표하였다. 빌리 레이드는 장식사를 활용한 컬러 자카드 디자인을 보여주었는데 패턴 변화로 보아 플로팅 자카드로 보인다. 겐조는 하이게이지의 2도 튜블러 자카드 풀오버에 스트링 터널을 장식하여 새로운 니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표 10>.

5) 인타시아 조직의 활용

최근 남성 니트웨어에 활용되는 컬러 배색의 편직 기법은 인타시아 기법이 과거에 비해 많이 활용되는데, 인타시아 편직 기계의 활용이 대중화

되어 편직비용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사료된다, 2011년 이후 남성 니트에 나타난 인타시아 기법은 175개(0.9%)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특징은 편직물의 뒷면을 활용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보테가 베네타, 버버리, 시블링, 넘버 21 등의 브랜드에서 발표한 인타시아 풀오버들처럼 뒷면에 나타나는 편직 스티치와 마무리가 안된 듯한 실밥들의 처리를 그대로 남겨두어 빈티지한 트렌드를 적용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보테가 베네타는 전통적인 아가일 문양을 사선으로 처리하여 편직포의 뒷면을 걸므로 하여 전통 문양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여준다. 마가렛 하우스는 아가일 패턴을 과장시켜 멜란 효과의 장식사를 로우게이지로 편직하여 새로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블링은 불규칙한 패턴을 인타시아 기법으로 편직하여 뒷면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마무리

<표 11> 2011년 이후 남성 니트웨어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인타시아 조직 활용

FW 시즌 남성 니트 인타시아 조직의 활용				
				
Bottega Veneta 14 FW	Burberry 16 FW	Margaret Howell 15 FW	Sibling 15 FW	MSGN 16 FW
SS 시즌 남성 니트 인타시아 조직의 활용				
				
No.21 16 SS	Acne Studios 15 SS	Dries Van Noten 13 SS	Dries Van Noten 16 SS	Dries Van Noten 16 SS

출처: www.vogue.com

안된 실처리와 액세서리를 조화시킨 폴로버로 제작하였다. 마무리가 안된 듯한 디자인으로 엠에스지엔에서는 커다란 아가일 패턴의 인타시아 스웨터에 헤어진 듯한 밀단을 처리를 하였으며, 과거 오래된 니트 스웨터를 착용한 것과 같은 복고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넘버 21의 풍성한 인타시아 니트 폴오버는 배의 닷 문양을 거친 느낌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인타시아 기법의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전통적 인타시아 편직 기법의 활용은 다양한 원사의 활용이나 실루엣 변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크네 스튜디오에서는 로고를 넣은 풍성한 실루엣의 스웨터를 발표하였으며 넘버 21에서는 아가일 전통 패턴을 헤어리한 원사를 조화시켜 새로운 느낌을 전달하였다. 드리스 반 노튼은 남성 니트웨어에 마릴린 먼로의 얼굴이

나 전갈 등의 눈길을 끄는 재미있는 패턴의 인타시아 니트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드리스 반 노튼은 가을 겨울 시즌 뿐 아니라 봄 여름 시즌에서도 다양한 인타시아 니트 폴오버 디자인을 발표하고 있었다<표 11>.

IV. 결론

본 연구는 현대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웨어의 원사, 조직, 게이지 등 니트 소재의 특수 디자인 요소를 수집하여 자료화하고, 니트 디자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의 수집 범위는 니트 디자인의 조직 문양 게이지 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남성복 37개 브랜드 컬렉션

을 대상으로, 패션 정보사이트 보그닷컴(www.vogue.com)을 통해 2011년 F/W~2017 S/S 컬렉션까지 12회의 컬렉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남성컬렉션 2011년 이후 나타난 니트웨어 원사의 종류는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양이 1,513개(77%)로 장식사 440개(23%) 대비 많이 나타났다. 장식사의 종류는 투톤이나 3가지색상의 멜란 효과의 원사가 많이 보였으며 헤어리한 원사도 다양한 조직의 활용과 함께 디자인되어 나타났다. 모헤어나 앙고라 셔닐과 같은 헤어리 양의 등장도 많이 나타나 로우 게이지의 니트웨어 디자인으로 많이 발표되고 있었다.

둘째, 2011년 이후 수집된 남성 니트웨어의 게이지 빈도는 로우 게이지와 미들게이지의 빈도는 비슷하게 많이 나타났다. 얇고 가볍게 나타나는 하이게이지는 SS 컬렉션에 주로 많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2001년~2010년 조사된 남성 니트웨어에는 하이게이저 빈도가 많이 나타났던 상황과 비교하면 다양한 특수사의 사용편안한 실루엣 등의 트렌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이후의 컬렉션에서는 SS 컬렉션에서도 굵은 태사의 미들게이지나 로우게이지의 니트웨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일반적인 봄여름 남성 니트웨어는 하이게이지나 미들게이지의 얇고 가벼운 니트 디자인으로 주로 나타나지만, 2011년 이후의 남성 니트 디자인은 로우 게이지의 여름 니트 디자인이 많이 선보였다.

셋째, 2011년 이후 남성 니트웨어의 니트 조직 활용은 기본 조직인 플레인 조직이 794개(40.6%)로 제일 많이 나타났다. 플레인 조직은 니트 조직의 가장 기본 조직으로 다양한 장식사의 활용과 함께 그 활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프린트나 나염 기술의 발달로 플레인 조직에 프린트를 활용하는 디자인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스트라이프 문양도 기본 조직으로 스트라이프 문양을 포함한 기본조직은 전체 수집 자료 중에서 4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컬러 활용의 컬러 자카드 조직이 326개(16.7%), 인타시아 조직이 175개(0.9%)로 활용되고 있었다. 장식사나 다양한 조직을 활용한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기본 플레인 조직에 리버스(reverse)를 활용한 변형 기본 조직들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바늘을 비운

레이스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카드나 인타시아 조직을 활용한 패턴 니트 디자인도 많이 보였으며, 인타시아 니트는 뒷면을 활용하거나 오래된 듯한 빈티지 느낌을 표현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 남성니트웨어의 다양한 디자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지속적인 니트 디자인 관련 연구들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순영, 박명자. (2008). 편성조직에 따른 니트 패턴의 패턴감성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3).
- 김석근. (1995). *메리야스 공학*, 서울: 문운당.
- 박기운 외. (2006). 니트용 장식사의 개발 동향과 트렌드 분석, 패션정보와 기술 3.
- 박문희, 이연희. (2011).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상·하위문화의 혼합특성. 복식문화연구, 61(4).
- 이순홍. (1997). *편물*, 서울: 수학사.
- 이슬아, 이윤미, 이연희. (2015). 니트 CAD시스템의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니트디자인, 복식, 65(1).
- 이승아, 이연희. (2012). 현대 남성 니트웨어의 디자인 특성, 복식 62(4).
-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1999). *Fashion dictionary 패션큰사전*. 서울: 교문사.
- 홍명화, 최경미 (2009). *니트디자인 가이드북*, 서울: 경춘사.
- Acne Studios. Retrieved January 3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acne-studios/slideshow/collection#1>
- Ami. Retrieved January 3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2-menswear/ami/slideshow/collection>
- Andrea Pompilio. Retrieved January 3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menswear/andrea-pompilio#collection>
- Bally. Retrieved January 3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bally#collection>
- Balmain. Retrieved January 30, 2017, from

-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dior-homme#collection/balmain#collection>
- Berluti. Retrieved January 3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3-menswear/berluti>
- Billy Reid. Retrieved January 3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billy-reid#collection>
- Bottega Veneta. Retrieved January 3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bottega-veneta#collection>
- Brioni. Retrieved January 3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menswear/brioni#collection>
- Brunello Cucinelli. Retrieved January 3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menswear/brunello-cucinelli>
- Burberry. Retrieved January 3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burberry-prorsum#collection>
- Calasibetta, Charlotte Mankey. (198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 Dior Homme.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dior-homme#collection>
- Dolce & Gabbana.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dolce-gabbana#collection>
- Dries Van Noten.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dries-van-noten#collection>
- Emporio Armani.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emporio-armani#collection>
- Fendi.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menswear/fendi#collection>
- Giorgio Armani.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giorgio-armani#collection>
- Hermes.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hermes#collection>
- J. Crew.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j-crew#collection>
- Juleana Sissons. (2010). *Knitwear*. AVA Publishing.
- Kenzo. Retrieved February 8,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kenzo#collection>
- Lisa D.ferrenza & Marilyn Hefferen. (2008). *Designing a Knitwear Collection*. New York: Fairchild Books & Visuals.
- MAN.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3-menswear/man#collection>
- Margaret Howell.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3-menswear/margaret-howell#collection>
- Michael Kors.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michael-kors-collection#collection>
- MSGM.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menswear/msgm#collection>
- No.21.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menswear/no-21#collection>
- Opening Ceremony.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4-menswear/opening-ceremony#collection>
- Orley. Retrieved February 5,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4-menswear/orley#collection>
- Pringle of Scotland. Retrieved February 1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pringle-of-scotland#collection>
- Raf Simons. Retrieved February 1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raf-simons#collection>
- Sacai. Retrieved February 1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sacai#collection>

- 2013-menswear/sacai#collection
- Salvatore Ferragamo. Retrieved February 1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salvatore-ferragamo#collection>
- Sandy B. (2002). *Knitwear in Fashion*. New York: Thames & Hudson.
- Sibling. Retrieved February 1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3-menswear/sibling#collection>
- Todd Snyder. Retrieved February 1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menswear/todd-snyder#collection>
- Topman Design. Retrieved February 1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3-menswear/topman-design#collection>
- Valentino. Retrieved February 1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2-menswear/valentino#collection>
- Versace. Retrieved February 1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versace#collection>
- Vivienne Westwood. Retrieved February 10,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1-menswear/vivienne-westwood#collection>